

대한민국의 ‘꿈’ 을 키우자

우리에게 꿈은 있는가? 필자는 얼마 전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두운 현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과연 꿈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미움과 다툼, 분열과 의혹, 절망과 어둠을 대변한다. 상대방의 추락과 파멸을 기원하는 저주와 파괴의 단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미담조차 악담의 소재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기부행위조차 세금이나 면해 보려는 행위로 격하되고, 포용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입에 담은 사람들은 바보로 취급되기 일쑤다. 건전한 비판은커녕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찬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은 우리 사회가 정녕 ‘희망과 꿈’이라는 단어를 품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우리 사회는 북한의 핵위협과 같은 군사적인 위기, 경기 불황과 실업 문제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사회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숙제는 우리 내부의 심각한 불신과 갈등 그리고 분열의 조장이다.

격려가 필요한 시점에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고, 진심에서 내민 손길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다는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진정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적 일까?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 25만 명의 시위대 앞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미국 사회는 분열이라는 절망의 기로에서 통합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 창 원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단법인 정부개혁연구소 소장
- 前 한국조직학회 회장
- 前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1970년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학살 기념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며 참회하는 순간 이스라엘과 독일 간에는 용서와 화해의 장이 마련되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스텐턴과 슈워드, 그리고 체이스를 각각 국방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에 임명하여 남북전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연설을 통해 '노예의 후손과 노예 소유주의 후손이 함께 식탁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이야기 했다. 킹 목사의 연설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인종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적인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성숙했다. 그가 분열과 투쟁이 아닌 화합과 통합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빌리브란트 총리가 나치독일의 만행에 대해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부와 남부가 분열되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과 경쟁자들을 배척했다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어 오늘날과 같은 미국의 모습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은 포용과 용서를 바탕으로 불신과 절망 그리고 불행의 위협에 처한 사회를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로 탈바꿈시켰다.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만을 강조하고 다른 이들로부터의 비판을 배척하였다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들이 당시 사회가 처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관용과 포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을 가질 자격이 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불신과 갈등으로 인한 위기는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위협이 과거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부와 남부 간의 갈등, 증오에 가득 찬 나치 독일의 인종차별적 만행, 1960년대의 미국의 사회갈등 만큼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시점부터 남과 북의 분열, 좌와 우의 분열로 이어져 온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 사회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제 파괴와 저주가 난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건전한 통합을 향한 꿈을 공유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우리에게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압축성장과 압축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온 것처럼, 우리에게 '꿈'을 실현시킬 능력과 자격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꿈이 없다면 공멸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 꿈의 '씨앗'이라도 뿌려야 한다.

보수와 진보 간에 파괴와 분열을 조장하는 단어들을 쏟아내기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과 '꿈'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정의를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당연시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먼 훗날 우리 후세대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불의를 부끄럽게 여기고 정의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미 이러한 불의를 부당하게 여기고 비판할 줄 아는 시민의식을 성숙시켜 왔다. 우리에게 충분히 그러한 역량이 있다.

우리는 이제 '꿈'을 이야기해야 한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꿈'을 이야기해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 평범한 소시민들도 행복한 사회와 같은 아름다운 '꿈'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정의 에너지'를 차단해야 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새롭게 가꾸어 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는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한 데 모인다면 “절망의 산을 깎아내어 희망의 돌을 만드는” 킹 목사의 연설이 우리 사회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연설 말미에서처럼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는 현실이 되어야 하며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꾸어야 한다. '꿈'을 이야기하고 키워나갈 때 우리 사회는 분열에서 통합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꿈'을 키우자.